

종합·국제

현장과 시각

J프로젝트가 간과한 것들



김주정

정치부 부장

“골프장 특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냐” “이명박 정부가 전복의 새만큼을 동북아의 두바이로 개발한다는데,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것이 아니냐” 전남도가 동북아 미래 관광 허브로 만들겠다는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J프로젝트)에 대해 지역 민이나 각계 전문가들이 요즘 갖는 의문이다. 지난 14일 영암에서 열린 J프로젝트 공청회에서 이...

14일 영암에서 열린 J프로젝트 공청회에서 이... 14일 영암에서 열린 J프로젝트 공청회에서 이... 14일 영암에서 열린 J프로젝트 공청회에서 이...

해남군 산이·황산면과 영암군 삼호읍 일원 100km에 2025년까지 15만명이 거주하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만들고, 골프장 30개를 만들어 연간 63만명의 해외 골프 여행객과 1조원 이상의 국부 유출을 흡수하겠다는 전남도의 전략에 대한 경고였다.

금호호와 영암호 등 사업지구 내 호수 수질에 대한 걱정도 이어졌다. 전승수 전남대 교수는 “관광레저 도시는 여름에 대부분의 수익을 올려야 하는데, 지금처럼 공업용수로도 쓰기 어려운 4급수인 영산호 물을 그대로 받는다면 무조건 망한다”고 못박았다.

당초 J프로젝트 추진을 반겼던 주민들이 반대 시위를 하며, 공청회 도중 퇴장하는 불상사도 벌어졌다. 주민 50여명은 “개발계획을 신중하면서 주민 의견을 전혀 듣지 않았다”며 “결사 반대”를 외쳤다.

보다 못한 김지화 중앙기업도시위원회(중주대 교수)는 “지금부터라도 공무원과 지방의원들이 잘 살펴라”며 “기업과 주민이 함께 살자는 일인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걱정했다.

주민 반대는 사업시행까지 불안하게 했다. 공청회 끝난 뒤 만난 한 사업시행자는 “사업지구의 77%인 79km의 간척지를 국가로부터 매입하려면 주민 동의가 필수적인데, 왜 불만을 키웠는지 모르겠다”고 씁쓸해 했다.

“대한민국에 관광레저도시할 만 한 곳은 여기 밖에 없습니다. 골프장은 인공 해수욕장, 승마장, 호텔과 함께 최고급 레저도시를 구성하는 시설 중 하나일 뿐입니다. 망할 곳에도 1조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겠습니까? 새만금은 여기보다 훨씬 좋고, 눈도 많고, 바람도 거셉니다. 공사하려면 앞으로 10년은 더 기다려야 하는데 (새 정부가) 잘 모르더라고요”

전남도가 이제라도 주민이나 새 정부 설득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얘기도 들렸다. /jnews@kwangju.co.kr

전략기획실 핵심임원 본격 소환

삼성특검, 이번주부터 김인주 사장 등 조사

삼성그룹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조준용 특별검사팀은 17일 비자금 조성 및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인물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이번주부터 본격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를 위해 이날 하루는 소환자 없이 ‘삼성 의혹’ 수사·재판서류 검토와 신문(鞫問)사항 점검, 법리 검토 등 사전 준비작업에 몰두했다.

윤정석 특검보는 “주요 인물에 대해 아직 소환 통보는 안 했다. 오늘은 수사팀들이 소환조사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 소환하면 물어봐야 할 내용이 많다”라며 현재 조사 일정을 검토 중이며 곧 소환 통보 및 출석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지금쯤은 잡을 잡고 있는 것”이라며 “태풍이 오려면 휴지기(休止期)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조만간 그룹 전략기획실 임원 등 ‘핵심 지휘부’를 겨냥해 강도높은 조사가 이뤄질 것임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전략기획실 김인주 사장과 최광해 부사장, 전...

음배 상무 등 핵심 임원들을 곧 소환해 조사를 할 것으로 전망되며,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출석했던 이학수 부회장의 재소환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들은 이견희 삼성 회장의 최측근이자 그룹의 비자금 조성·관리 의혹과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가장 잘 아는 ‘핵심 라인’ 임원들이어서 특검 수사가 이번주를 고비로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팀은 이들을 상대로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비자금을 조성·운용했는지와 계열사 지분을 할각에 이재웅 삼성전자 전무에게 넘겨 경영권을 불법 승계하는데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추궁하고 비자금 사용처도 캐물을 예정이다.

한편, 특검팀은 수원 삼성전자가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16일 끝났고, 삼성증권 전산센터 압수수색은 새로운 전산자료를 다운로드 받는데 다소 시간이 걸려 계속 진행 중이며, 이견희 회장 일가의 과세내역 자료는 국제청으로부터 넘겨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일주일 남은 BBK 특검 어떤 결과 내놓을까

李당선인 BBK ‘무혐의’ 처분 전망 도곡동 땅 실소유주는 밝혀질 수도

이명박 당선인의 여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정호영 특별검사팀이 17일로 종료일인 23일까지 마지막 1주일의 수사 기간만을 남겨두게 됐다.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출범한 특검팀이 이제 BBK, 도곡동 땅 및 루다스의 실소유, 삼양 DMC 특혜분양, 검찰의 회유·협박 의혹 등 네 줄기 수사와 관련해 실제적 진실에 부합하는 최종 수사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BBK 의혹, 검사 회유 의혹 ‘무혐의’ 전망 높아=이번 특검 수사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BBK 의혹의 핵심은 당선인이 BBK투자자문의 지분을 갖지 않았지만 투자금을 실질적으로 유지하는 등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었느냐는 것이다.

김경준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당선인이) BBK에 법적 지분은 없지만 마음의 지분은 있다”고 말해왔는데 이는 김씨의 인식을 단적으로 대변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작년 12월 수사결과 발표 때 당선인은 장신대 등으로부터 7억원의 투자금을 유지했을 뿐 대부분의 BBK 투자금은 김경준씨가 직접 유지한 것이라 결론을 내린 바 있지만 이후 불거진 이른바 ‘광운대 동영상’은 많은 국민들이 이 같은 수사 결과를 회의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김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도곡동 땅 실소유 의혹서 기대 밖 성과 기대=반면 도곡동 땅 및 루다스 실소유 의혹과 관련해서는 작년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도곡동 판매 대금 관리인’ 이영배, 이병모씨 등 중요 참고인들이 조사를 받으며 의외의 수사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특검팀은 ‘제3자의 것’이었던 이상은씨 명의의 도곡동 땅 판매금 17억원이 다소 흘러들었던 경위를 밝히는 게 다스와 도곡동 땅의 실소유 의혹을 밝히는 데 결정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이 부분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도곡동 땅 판매금을 관리했던 이병모, 이영배씨나 루다스로부터 어떤 형태가 되었던 당선인 측에 돈이 흘러간 정황이 없는지를 가려내기 위해 특검팀은 당선인과 관련 인물들의 계좌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자금추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오바마 돌풍’ 일등공신 미셸 오바마

백인가정서 자란 남편 약점 보완 흑인 표 물고와

미국 민주당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의 부인 미셸은 과연 오바마에게 어떤 존재일까.

미셸은 프린스턴대 학부와 하버드

로스를 재학 당시 학생회 선거에조차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았고, 1990년대 초반 로렐에서 자신의 미래 남편인 오바마를 처음 만났을 때도 정치에는 회의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그



지난해 말 아이오와주 디모인에서 열린 유세전에서 오바마의 강력한 지지자 오 프라 윈프리와 함께 청중의 환호에 답하는 미셸 오바마(왼쪽).

녀가 이제는 오바마 경선 운동에서 없어서는 안될 조력자로 자리매김했다고 미 시사주간 뉴스위크가 16일(현지 시각) 최신호에서 보도했다.

일례로 미셸은 지난달 3일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에 이어 오바마의 압승이 예상됐던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경쟁자 힐러리 클린턴 의원에겐 일격을 당한 후 허탈과 충격에 빠진 측근들을 격려하는데 앞장섰다.

오바마는 부인의 그런 무언의 격려와 지지자들의 열광에 힘입어 다시 한번 사기를 재충전할 수 있었다. 아울러 그녀는 지난달 사우스 캐롤라이나 경선 승리를 비롯, 남편이 흑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는데 큰 역할을 했다.

흑백 혼혈이고 명문 하버드대 출신의 오바마가 하와이에서 백인 조부모에 의해 양육됐다는 점 때문에 흑인들로부터 자신들과 같은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회의적인 시각이 대두됐을 때 미셸은 팔을 걷어붙이고 “오바마는 동지”라는 인식을 심는데 주력했다.

순수 흑인으로 오바마보다 더 흑인 주류 사회에 가까운 배경을 가진 미셸은 감동적이고 조리있는 연설로 흔들리는 흑인 유권자들의 이타를 막는데 큰 역할을 했다. /연합뉴스

힐러리 외동딸 첼시 선거운동 전면 나서나

경선 잇단 패배...언론 접근 금지 해제 목소리

미국 민주당 대선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의 외동딸 첼시(27)에게 그동안 사생활 보호를 위해 취해온 언론 접근금지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압력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고 CNN방송이 16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힐러리가 최근 미 대선 예비경선에서 잇따라 패하면서 경쟁자인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에겐 대의원 확보 수에

서 처음으로 뒤져 열세를 보이면서 첼시가 어머니인 힐러리의 약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병기로 등장해 젊은층을 겨냥해 대학가 등을 무대로 활동적인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첼시는 오는 19일 하와이에서 프라이머리(예비선거)를 앞두고 현지에서 힐러리의 승리를 위해 사흘간 선거 유세에 나서 설 예정이다. 첼시는 또 앞으로 전국 유

세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힐러리는 무엇보다 사생활을 보호하겠다는 딸이 대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해왔고 선거운동 관계자들도 이번 대선에서 첼시가 전면으로 나서는 일을 없을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어머니를 간접 지원하는 역할에 머물러 왔던 첼시가 직접 선거운동에 가세하면서 첼시에 대한 언론접근을 차단해온 보호막을 터뜨리려는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파키스탄 오늘 총선...부토黨 승리 예상

격랑에 휩싸인 파키스탄 정국의 최대 변수가 될 총선거가 18일 치러진다. 파키스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8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국 6만4천 176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투표를 실시한 뒤 오는 20일에 공식 개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파키스탄의 총선은 당초 지난해 11월 전(前) 의회가 해산되기 이전에 치러져야 하지만, 페르베즈 무샤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연 기했고 이어 베나지르 부토 전 총리 암살

여파로 또다시 미뤄졌다. 두 차례의 연기 끝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는 부토 전 총리의 파키스탄인민당(PPP)이 제1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파키스탄 내 여론조사 발표가 금지된 가운데 미국의 국제공화주의연구소(IRI)가 지난달 19~29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PPP는 무려 50%의 지지율로 1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2009년 교원임용고사 대비 = 겨울학기 교육학+전공특강 = 2009학년도 새롭게 변화된 시험제도 완벽 대응 기회!! 최고의 적중률을 자랑하는 현대고시학원 교수진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교육학 김인식 교수(직강) 개강 1월 10일(목) 10:00~19:00. 초등교육 배재민 교수(직강) 개강 1월 6일(일) 13:00~19:00. 유아교육 박수정 교수(직강) 개강 1월 7일(월) 15:00~21:00. 국어 유광재 교수(직강) 개강 1월 5일(토) 10:00~18:00. 영어 류호강 교수(직강) 개강 1월 6일(일) 10:00~17:00. 과학교육은 류호창 교수(직강) 개강 1월 5일(토) 14:00~18:00. = 공인중개사/주책관리사 합격설명회 = 배주- (화,목) 오후 6시- (토) 오후 3시. 현대고시학원 동부경향서원 (062)222-6790

= 가장 확실한 합격의 길!! 무등과 함께 하십시오!! = 7급 공무원 완전 대비 = 강 좌 직 종 = 행정직, 교행직, 세무직, 관세직, 감사직, 법원직, 검찰직, 교정직, 모호직, 소방직, 소방직, 전산직, 복지직, 토목직, 건설직, 보건직. = 47년 동안 합격시켜 본 경험이란 헤아릴 수 없는 값진 보물이다. = 정규이론D반 1개강 2월 15일. 문제풀이반 1개강 2월 15일. = 2개월 완성 이론반 = 1개월 완성 코스 =. 考試名 門 무등고시학원 www.mdgoal.co.kr 222-4560

www.hanbitgosi.co.kr = 2008년 공무원 합격은 한빛이 주도한다. 2008년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시험 거침없이 합격하라! - 한빛이 응원합니다. 7급 공무원 합격대특강. 개설직종: 행정직, 교육행정직, 세무직, 법원직, 검찰직, 사회복지직, 군무원, 교정직, 소방직, 농업직, 토목직, 건축직, 전산직, 보건직, 기술직. 9급 문제풀이반 (1개월완성) 개강 3월 3일. 9급 이론출수반 (2개월완성) 전직종 첫진도. 사전예약접수중. 한빛공무원학원 (062) 252-0252

마술 (Magic) 무료 수강생 모집. 마술이란 강도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신제입니다. 마술을 통하여 어린이에게는 꿈과 아이큐 향상을, 성인에게는 개인의 장기자랑 및 취미생활로 활용하며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은 웃음을 잃은 사람에게 용기와 꿈과 희망을 주는데 목적이 있으며, 본 무료교육 프로그램은 마술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사회봉사차원에서 실시하는 무료강좌 프로그램입니다. *모/집/대/상* 유치원, 초·중등교사로서 수업에 활용하실분. 봉사활동 및 취미로 배우시려는 주부 및 어르신. 마술에 관심있는 초·중·고등생 및 일반인. 소극적인 성격 개선 및 각종 발표회에 응용. 비즈니스를 위한 영업전략에 활용하실분. 초·중등생 게임중독치료 및 발표력 향상. 초·중등 특기적성 마술교사로 활동하실 분(취업추천). 무료 초·중등 어린이 마술 교실 특강. 마술은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과 아이큐 향상 및 요즘 화두로 떠오르는 EQ(감성)지수도 높여준다. 특히 성격 개선 및 각종 발표회에 활용할 수 있다. *교육기간: 주1회 8주 2개월. *교육비: 무료(마술도구비 별도, 개인소장). *교육장소: 동부경향서원 무등고시학원. *접수방법: 선착순 20명 전화 예약 접수(개인교습). 마술지도자 강사취업 연구생 모집(마술지도자 자격증 과정). *강종행사: 마술출장공연·어린이관련행사·교회행사. *각종복지관·초·중등특기적성 마술교사로 활동 하실 분. *교육기간: 주 2회 4개월 완성. *교육내용: 초급 중급 고급과정, 아동심리학, 아동지도론, 마술학개론(이론+실기). *모집인원: 20명 한정교육. 수료후특전: 전원 취업 추천, 마술지도자 자격증 취득. 매직&매직 아카데미 (062)434-7857